



필리핀 한국 상공회의소 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January 2026 Issue | Vol. 08

SPECIAL POINTS OF INTEREST

- 2025년 4분기 농업 산출량 0.5% 증가 — page 1-2
- 감사 면제가 MSME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 page 2-3
- 필리핀 2025년 4분기 GDP 성장을, 팬데믹 이후 최저 3% 기록 — page 3-4
- PEZA, 2026년 첫 회의에서 128억 6천만 폐소 규모 18개 프로젝트 승인 — page 4
- MBC: ‘적합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금융 법률 현대화 필요 — page 5
- 외주(아웃소싱) 산업, 2026년 성장 기대감 — page 6
- 산업 단체, 수입 급증 대응 무역 구제 조치 지지 — page 6

클레이어 테니스 마파 필리핀 통계청장은 해당 분기 동안 고구마, 아바카, 여주(암팔라야), 감자, 파인애플, 카사바, 칼라만시, 바나나 등의 생산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감소분은 녹두, 커피, 토마토, 카카오, 고무, 양파, 양배추, 담배, 망고, 가지, 코코넛 등의 생산 증가로 일부 상쇄됐다.

연간 기준으로는 작물 하위 부문이 2024년 9,602억 폐소에서 2025년 9,868억 1천만 폐소로 2.8% 증가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축산·가금류 부문, 견조한 흐름

전체 농업 생산의 14%를 차지하는 축산 부문은 2025년 4분기 684억 2천만 폐소로 1% 성장했으며, 이는 주로 돼지고기와 낙농 생산 증가에 힘입은 것이다.

돼지고기 생산은 1.6% 늘어난 45만 4,980메트릭톤을 기록했으며, 낙농 생산은 11.59메트릭톤으로 35.8%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염소, 소, 카라바오 생산 감소를 상쇄했다.

[Cont. page 2]

2025년 4분기 농업 산출량 0.5% 증가

January 29, 2026 | Jordeene B. Lagare | Philippine Daily Inquirer

축산·가금류 호조가 작물 부진 상쇄

2025년 4분기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축산, 가금류, 수산 부문의 강한 성장세가 작물 생산의 지속적인 부진을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수요일 발표한 자료에서 2025년 12월까지 3개월 동안 농림수산업 생산액이 4,870억 4천만 폐소에 달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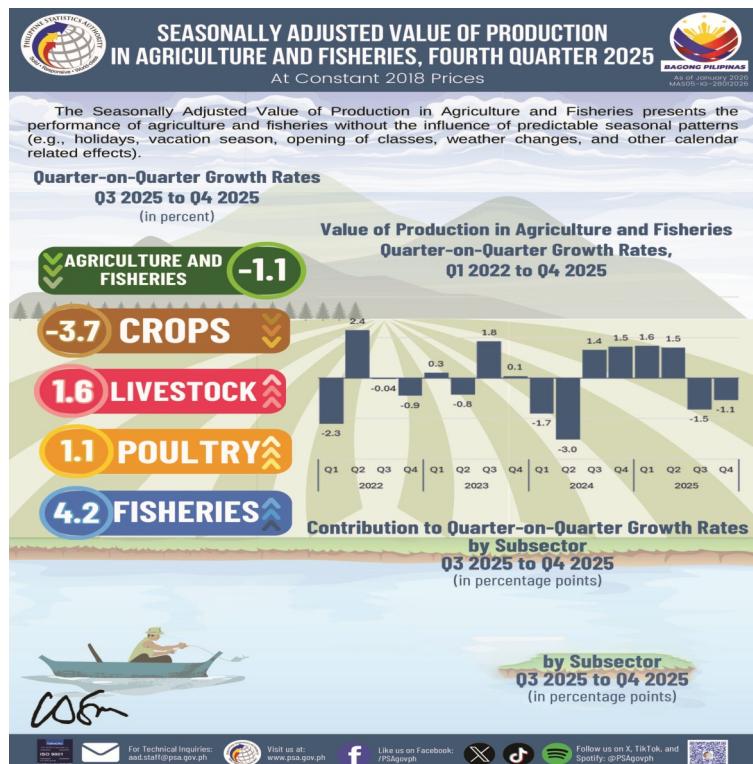
2018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보면, 2025년 4분기 농업 생산액은 4,845억 9천만 폐소로,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며 2024년 10~12월 분기에 기록한 2% 감소에서 반등했다.

2025년 연간 기준으로 농업 부문은 2.6% 성장해, 2024년에 기록한 2.1% 감소에서 회복세를 보였다.

작물 부문, 농업 실적 발목

작물 부문은 4분기 전체 생산의 56.3%에 해당하는 2,743억 폐소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논벼(팔라이) 생산 감소의 영향을 받아 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5% 감소했다.

논벼(팔라이) 생산량은 전년의 723만 메트릭톤(MT)에서 685만 MT로 줄어들며 5.2% 감소했다. 반면 옥수수 생산은 193만 MT에서 199만 MT로 3.1% 증가해 일부 완충 역할을 했다.



2025년 4분기 농업 산출량 0.5% 증가

[Cont. from page 2]

분기 기준으로는 개선세를 보였지만, 연간 기준 축산 생산액은 2024년 2,523억 폐소에서 2025년 2,464억 2천만 폐소로 2.3% 감소했다.

가금류 부문은 하위 부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했다. 2025년 4분기 가금류 생산액은 781억 8천만 폐소로 8.9% 증가했다. 닭고기 생산은 9.4% 늘었고, 계란 생산은 8.9% 증가했으며, 오리고기 생산도 1.4% 성장했다. 반면 오리알 생산은 9.6%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가금류 생산액은 9.1% 증가한 3,047억 1천만 폐소를 기록했다.

수산업 성장, 작물 부진 상쇄

수산업 생산액은 2025년 4분기 661억 3천만 폐소로 4% 증가했으며, 오징어, 밀크피시(방우스), 탈라키톡, 정어리, 가다랑어, 알루마한, 틸라피아, 각종 참치류 생산 증가가 이를 견인했다.

필리핀 통계청(PSA)은 갈통공, 탑반, 해조류, 새우류 등 일부 어종의 생산 감소가 전체 증가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5년 연간 기준 수산업 생산액은 2024년 2,343억 1천만 폐소에서 2,336억 7천만 폐소로 0.3% 감소했다.

Source: <https://malaya.com.ph/business/agri-q4-2025-growth-output-up-0-5/>

감사 면제가 MSME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January 29, 2026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STOCK PHOTO | Image by DC Studio from Freepik

필리핀 소규모 기업(Micro Enterprises)을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면제하는 방안이 더 많은 중소기업(MSME) 창업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가들은 전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추가 자금과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리잘 상업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는 Viber 메시지를 통해 “규제, 준수, 과세, 사업 용이성, 비용 절감 등 MSME를 위한 인센티브와 보다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은 국내에서 더 많은 MSME 창업을 장려하고, 이를 주요 경제 동력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중소·영세기업(MSME)은 자산 규모와 직원 수를 기준으로 분류된다. 마이크로기업(Micro Enterprises)은 토지를 제외한 자산이 3백만 폐소 이하이며, 일반적으로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소기업(Small Enterprises)은 자산이 3백만~1,500만 폐소이고, 직원 수가 10~99명인 기업이며, **중기업(Medium Enterprises)**은 자산이 1,500만~1억 폐소이고 직원 수가 100~199명인 기업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의 2026년 제4호 메모랜덤 서클리에 따르면, 총 자산이나 부채가 3백만 폐소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비주식 법인은 감사보고서 제출에서 면제된다. 이전에는 총 자산이나 부채가 60만 폐소 미만인 법인만 의무 감사에서 제외됐다. 이번 새로운 기준은 주로 마이크로기업에 혜택을 주며, 규제 준수 비용을 줄이고 공식 경제 진입을 장려한다.

필리핀개발연구소(PIDS) 선임연구원 존 파올로 R. 리베라는 이번 규제가 “규제 준수 비용과 행정 부담을 줄여 핵심 운영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수 있게 하고, 현금 흐름과 생존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공식 경제 진입 장벽을 낮춰, 매우 작은 기업도 과도한 보고 비용 없이 규제 경제에 머물기 쉬워진다”고 Viber 메시지를 통해 덧붙였다.

SEC 서클리에 따르면, 새로운 기준 이하 기업은 경영진 책임 설명서(Statement of Management's Responsibility, SMR)와 함께 인증된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규제 변화 외에도, 마이크로기업은 단순화된 세금 및 혜택 절차, 저렴한 신용 접근, 디지털 도입 지원, 회계, 마케팅, 기술 교육 등 맞춤형 사업 개발 서비스를 통해 추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리베라 연구원은 설명했다.

[Cont. page 3]

감사 면제가 MSME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Cont, from page 2]

필리핀상공회의소(PCCI) 회장 조지 T. 바르셀론은 정부가 2002년 제정된 바랑가이 마이크로 비즈니스 기업(BMBE) 법의 적절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MBE 법, 즉 공화국법 제9178호에 따르면, 토지를 제외한 자산이 3백만 폐소 미만인 마이크로기업은 세금 면제와 간소화된 등록 절차를 받을 수 있다.

바르셀론 회장은 Viber 메시지를 통해 “이 법은 비공식 부문의 성장을 촉진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MSME는 필리핀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며, 국가 경제 생산의 약 40%에 기여한다. 전체 기업 중 113만 개의 90.66%는 마이크로기업이며, 소기업은 10만 6,799개(8.6%), 중기업은 4,633개(0.37%)로 2024년 상무부(DTI) 자료에 나타났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corporate/2026/01/29/727120/exemption-from-audits-seen-to-encourage-msme-growth/>

필리핀 2025년 4분기 GDP 성장률, 팬데믹 이후 최저 3% 기록

January 29, 2026 | Nyah Genelle C. De Leon | Philippine Daily Inquirer

2026년 1월 29일 오전 11:02 업데이트

필리핀 마닐라 — 부패 수사 여파와 일련의 파괴적인 태풍으로 인해, 필리핀의 경제 성장률이 2025년 4분기에 팬데믹 이후 최저치인 3%로 급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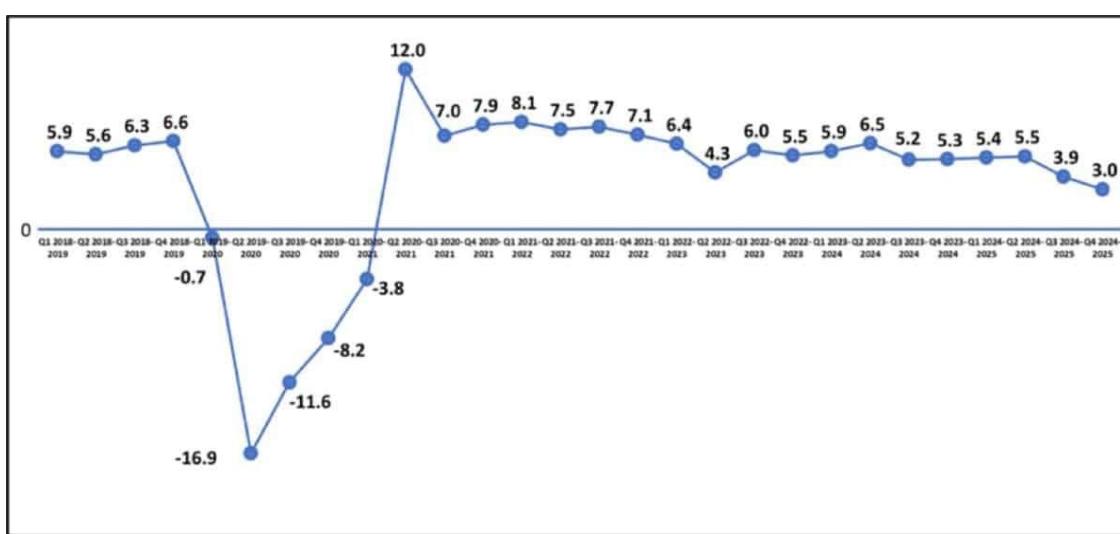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이미 실망스러웠던 3분기 수정치 3.9%보다 더 둔화되면서, 필리핀은 2025년을 목표치 이하의 성과로 마감했다.



FILE: Makati CBD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PSA)은 목요일, 한 해 동안 경제 성장 모멘텀이 부진하게 이어지면서 2025년 전체 경제 성장률이 겨우 4.4%에 그쳤다고 보고했다.

이번 수치는 마르코스 행정부가 설정한 2025년 목표치 5.5~6.5%를 밀들며, 성장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3년 연속 사례가 되었다.



“이번 결과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반영합니다. 여기에는 기상 및 기후 관련 혼란으로 인한 부정적 경제 영향이 포함됩니다. 솔직히 말해, 홍수 방지 사업 관련 부패 스캔들도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부담을 주었습니다.”
— 아르세니오 발리사칸 (Arsenio Balisacan)
경제기획장관

4분기 3% 성장률은 COVID-19 팬데믹 봉쇄 기간이었던 2021년

1분기 3.8% 경제 축소 이후 필리핀 경제의 최악 성적을 기록한 것이다.

팬데믹 기간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 이는 2009년 4분기 1.8% 경제 축소 이후 최악의 성과에 해당한다. [Cont. page 4]

필리핀 2025년 4분기 GDP 성장을, 팬데믹 이후 최저 3% 기록

[Cont. from page 3]

목표치 미달

현재 수치는 정부가 예상한 4.7~4.8% 성장을조차 밑돌았다. 이 전망은 이미 3분기 4년 만의 최저 성장을 기록으로 경제 신뢰가 흔들린 이후 느린 성장세를 반영해 설정된 것이었다.

또한, 성장 둔화는 여전히 광범위한 홍수 방지 사업 부패 스캔들로 인해 촉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의 인프라 투자 지출은 거의 42%까지 축소되었다.

“이러한 사안들이 단기 성장에 부담을 주었지만, 홍수 방지 사업 부패 논란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했습니다,”라고 발리사칸 경제기획장관은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인프라 부문에서는 공공사업 완료를 제개하고 속도를 높이는 한편, 더 엄격한 반부패 안전장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dda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571342/philippine-gdp-growth-down-to-3-in-q4-2025>

PEZA, 2026년 첫 회의에서 128억 6천만 폐소 규모 18개 프로젝트 승인

January 28, 2026 | Joan Villanueva | Philippine News Agency

마닐라 — 필리핀 경제구역청(PEZA) 이사회가 올해 첫 회의에서 약 128억 6천만 폐소 규모의 18개 신규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수요일 보도자료에서 PEZA는 이들 프로젝트 중 3개는 대형 사업으로, 총 118억 9천만 폐소 규모이며, 파라냐케 시 관광 경제구역 기업과 미사미스 오키시엔탈 및 바탕가스의 두 경제구역 개발 프로젝트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PEZA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들은 제조업, IT-BPM, 유틸리티, 경제구역 개발, 물류,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며, 여러 지역에서 총 1,00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약 5,974만 달러 규모의 예상 수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프로젝트들은 칼라바르손(Calabarzon),



(Infographic courtesy of PEZA)

수도권(National Capital Region), 중앙 비사야(Central Visayas), 비콜(Bicol) 지역, 북민다나오(Northern Mindanao), 그리고 PEZA에 따르면, 이번 투자의 대부분은 일본, 독일,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 기업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나 이번 승인은 2025년 같은 기간 이사회가 승인한 301억 6천만 폐소보다 낮은 수준이다.

테레소 판가(PEZA 사무총장)는 “오늘날 투자자들은 보다 신중한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회복력, 효율성, 장기적 가치를 우선시하고 있다. 고무적인 점은 필리핀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계속 제공하여 수출 지향적 투자가 자신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회복력은 단순히 경제 확장기뿐 아니라, 경제가 전환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도 달려 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은 안정적인 재조정 과정이며, 이는 필리핀이 투자자들의 장기 계획 속에 확고히 자리잡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PEZA는 올해 3천억 폐소 규모의 투자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약 10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ource: <https://www.pna.gov.ph/articles/1267910>

MBC: ‘적합한 투자자’ 유치를 위해 금융 법률 현대화 필요

January 29, 2026 | Dexter Barro II | Manila Bulletin



영향력 있는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akati Business Club, MBC)은 마르코스 행정부에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Law) 개정과 투명성 제도화 개혁을 통해 부패를 억제하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것을 촉구했다.

MBC는 성명에서 정부가 국가 기관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카티 비즈니스 클럽(Makati Business Club, MBC)은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필리핀이 지난해 수십억 폐소 규모의 홍수 방지 사업 스캔들로 인한 투자자 신뢰 약화에 계속 발목 잡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는 정부에 은행 비밀법(Bank Secrecy Law) 개정을 통해 국가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홍수 방지 사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법안을 발의한 징고이 에스트라다(Jinggoy Estrada) 상원의원이 제안한 상원 법안(SB) 1047호의 통과를 요구했다.

제안된 법안에 따르면, **필리핀 중앙은행(Bangko Sentral ng Pilipinas, BSP)**과 법원은 뇌물 수수, 사기, 자금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은행 계좌를 조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BSP는 불법 또는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은행 예금을 접검할 수 있다.

SB 1047호는 은행 계좌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BSP의 통화위원회(Monetary Board)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 범죄 조사나 이미 폐쇄된 은행 처리 등 공식 목적에 한해 수행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MBC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가 부패 방지에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MBC는 2026년 국가 예산을 위해 정부가 시작한 예산 과정의 투명성 유지를 요구했다.

MBC는 정부가 양원 협의회 심의에 대한 공개 접근을 보장하고, 예산 문서의 시기적절한 공개를 확실히 하며, 시민단체의 예산 심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MBC는 “더 투명한 예산 과정은 공공 지출의 질을 높이고, 투자자 신뢰를 강화하며, 자원이 포용적 성장과 장기 발전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적절히 배분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MBC는 정부가 정보자유법(FOI) 법안의 통과를 우선시해, 공식 정부 기록과 문서에 대한 무제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부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 기관이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프로그램과 사업과 관련된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투자자 유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MBC는 정부가 기업활동편의법(Ease of Doing Business Act) 시행을 개선하고, 특히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LGU) 간 전자적 사업 허가·면허 시스템 구축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MBC는 **반관료주의청(Anti-Red Tape Authority, ARTA)**에 비협조적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 확대를 요구했으며, 현재 시행 수준이 여전히 기관별로 상이하다고 지적했다.

MBC는 투명성 개혁을 통해 정부가 ‘적합한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를 통해 필리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MBC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으며 규칙 기반의 기관은 부패를 줄이고,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며, 투자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해 사업 비용을 낮추고 장기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Source: <https://mb.com.ph/2026/01/29/mbc-modernize-financial-laws-to-attract-right-kind-of-investors>

외주(아웃소싱) 산업, 2026년 성장 기대감

January 29, 2026 | Chynna Grace Ong | The Manila Times

필리핀 IT·비즈니스 프로세스 협회(Ibpab) 수장은 올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Ibpab 회장 겸 CEO인 잭 마드리드(Jack Madrid)는 수요일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성장이 글로벌 역량 센터(Global Capability Centers, GCCs)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CC는 다국적 기업이 핵심 비즈니스 기능(IT, 연구개발, 금융, 엔지니어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전문화된 자회사 형태의 오프쇼어(offshore) 또는 니어쇼어(nearshore) 단위이다. 아웃소싱과 달리, GCC는 모기업이 100% 소유하며, 혁신 촉진, 디지털 전환, 글로벌 인재 활용을 통해 효율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마드리드는 필리핀 내 GCC가 현재 160곳에 달하며, 향후 IT·BPM(정보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산업 전체 성장률을 넘어설 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의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마드리드는 IT·BPM 산업의 성과를 일자리 증가가 아닌 직원 1인당 수익 기준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은 [디지털 역량을 갖춘] 필리핀 인재의 수준이어야 한다. 그래서 재교육과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동화와 인공지능(AI)이 서비스에 통합되는 지금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근로자들은 인간의 판단력, 의사결정, 공감 능력이 필요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년 필리핀 IT·BPM 산업은 수출 수익 400억 달러, 8만 개 일자리 제공, 20억 달러 수익을 기록했다.

올해 Ibpab는 수출 수익 420억 달러, 산업 수익 5% 성장, 197만 개 일자리를 전망하고 있다.

협회는 지속적인 성장 경로를 위해 세 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AI 책임 있는 확대, 글로벌 역량 센터 확장, 현재 및 미래 인재 육성·보호.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6/01/29/business/top-business/outsourcing-industry-upbeat-on-2026-growth/2267147>

산업 단체, 수입 급증 대응 무역 구제 조치 지지

January 27, 2026 | Othel V. Campos | Manila Standard

필리핀 산업연맹(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FPI)은 국내 제조업체들이 지속적인 수입 급증으로부터 보호를 요구함에 따라 올해 무역 구제 조치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필리핀 산업통상부(DTI) 수입서비스국(Bureau of Import Services)이 밝혔다.

FPI 회장 베스 리(Beth Lee)는 국제 무역이 필리핀 경제에 매우 중요하며, 특히 수입품이 덤핑되거나 보조금을 받거나,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과도한 물량으로 시장에 진입할 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FEDERATION OF PHILIPPINE
INDUSTRIES, INC.

“안전장치는 장벽이 아니라 생명선입니다. 우리는 필리핀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환영합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FPI 측에서는 산업체가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보호조치는 공정 경쟁, 근거 기반 개입, 시기 적절한 정책 실행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회장은 관세위원회(Tariff Commission, TC)가 수입 급증이 국내 시멘트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한 후, 2026년 1월 19일부터 2029년 1월 18일까지 시멘트 수입품에 대해 개별적 안전판세를 1포대당 14페소로 부과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녀는 “이번 안전조치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며, 정부 인프라 사업에서 필리핀산 시멘트가 대체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멘트는 단지 한 분야에 불과하며, 국내 철강 산업 역시 지속적인 수입 압력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이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품질이 낮거나 인위적으로 저렴한 철강 제품이 국내 공급을 잠식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리 회장은 “철강은 기초 산업입니다. 국내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기계 부품, 전선, 스프링, 베어링 등 하류 제조업은 경쟁할 수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식품 제조업을 포함한 다른 산업 부문도 수입으로 인한 경쟁 압력 증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

Source: <https://manilastandard.net/business/314696222/industry-group-backs-trade-remedies-against-import-surges.html>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Our Areas of Expertise



PROPERTY INSURANCE 재물

Industrial All Risks 재산종합 | Fire Broad Named Perils 화재 |
Commercial All Risks 영업종합 | Machinery Breakdown 기계
Business Interruption 기업휴지 | Contractors' All Risks 건설종합 |
Equipment Floater 장비



MOTOR 자동차

CTPL 책임보험 | Comprehensive 종합보험 | Fleet Policy 그룹증권



PEOPLE SOLUTIONS 직원복지

Life 생명 | HMO 의료실비 보험 | Clinic Management 의료관리 |
Key Person Insurance 경영자보험



MARINE INSURANCE 적하/물류

Single Shipment 수입/수출 일회운송 | Marine Open 수입/수출 연간보험 |
Inland / Inter-island 내륙운송/섬간 이동 운송 | Stock Throughput 물류종합



ACCIDENT & TRAVEL 상해 & 여행자

Personal Accident (Individual & Group), Travel (Individual & Group)



LIABILITY 배상책임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영업배상 | Product Liability 생산물배상 |
Freight Forwarders' Liability 물류업자배상 |
Professional Indemnity 전문인배상 | Directors and Officers 임원배상



OTHERS 기타보험

Bonds 보증보험 | MSPR 현금도난 | Fidelity 신원보증 | Trade Credit 신용보험 |
Political and Terrorism 정치적위험 및 테러 | Cyber Insurance 사이버보험

We Answer To No One But Our Clients

Lockton Philippines Insurance & Reinsurance Brokers, Inc.



29th and 36th Floors, Rufino Pacific Tower, 6784 Ayala Avenue corner
V.A. Rufino Street, Makati City, Philippines 1200



+632 8811 0388



info.philippines@lockton.com



For Korean accounts, you may contact Hye-Won "Eunice" Park 박혜원 팀장

eunice.park@lockton.com



+63 917 854 7930

